

경희人 – 아침을 여는 사람들 ③

‘파란 모자 쓴 아저씨’의 왼쪽 가슴에 담아낸 소망

국제캠 노천극장 청소노동자 오성문 씨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 우리학교에는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 아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린 그들의 땀방울은 우리학교의 아침을 이룬다. 우리신문은 ‘경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교정을 거닐면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그들의 목소리, 그 속에는 각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마주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매미산의 산자락을 이불삼아 작은 연못을 등지고 있는 곳, 국제캠퍼스(국제캠) 노천극장은 교정의 가장 외딴 곳에 떨어져 있다. 노천극장의 아침은 조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동이 트자 새들은 공간을 노닐며 빛 무대의 주인 공이 되어 노래를 부른다. 그곳에 눈에 띠는 한 사람이 있었다. 노천극장의 빛 나는 아침을 만드는 오성문(61) 씨를 만나봤다.

첫 눈에 오 씨의 얼굴을 자세히 알아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눈썹이 보일 듯 말 듯 푹 눌러쓴 모자와,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여기까지 올라 오느라 고생했고, 내려와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노천극장 아래 대기실에 들어갔지만, 오 씨는 실내에서도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20대 중반, 오 씨는 인테리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막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시기였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꿈’ 그는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이루고 싶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

시간이 흘러 오 씨의 머리에 희끄무



용역업체 유니폼을 벗은 오성문 씨에게는 ‘KHU’ 로고가 달린 모자가 더욱 잘 어울렸다.

“

이제 진짜 경희대학교 소속이 된 거니까 긍지가 생기지 단순히 내 욕심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 잘 된 일야

”



‘파란 모자 쓴 아저씨’ 시절의 오성문 씨.

레한 빛이 내려앉았을 때였다. 인테리어 사업은 특성상 비수가 길다. 그는 언제부턴가 이 공백을 술로 대신했다. “멍하니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 몸도 마음도 망가져버린 힘든 시기였다.

건강이 악화되자 결국 오 씨는 가게의 문을 닫았다. 시원섭섭한 마음을 뒤로한 채 새 일을 찾던 오 씨가 국제캠에 온 것은 6년 전, 지인에게 소개를 받으면서부터였다. 몇 푼 안 되지만 매달 들어오는 급여와 규칙적인 일상은 오 씨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일을 해보겠다고 덜컥 계약을 했지만, 몸보다는 마음이 문제였다. “남들 보는 앞에서 빗자루를 드는 일이 맨 처음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몰라.” 이유 모를 자격지심이었는지 ‘빗자루를 손에 쥐는 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용기 가 필요했다.

그러던 오 씨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바로 모자와 선글라스를 이용해

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다. 일할 때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는 습관은 오늘 날까지 이어진다. “지금은 모자랑 선글라스가 없으면 허전한 느낌이야.” 언제부턴가 오 씨는 동료 미화원들에게 ‘파란 모자 쓴 아저씨’로 불리고 있다. 부끄러움을 이유로 처음 시작했던 습관은, 이제는 그를 생각하면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가 됐다.

오 씨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른 5시 40분에 시작된다. 7시, 학교에 도착하면, 버스 차고지 뒤편 대기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다. 그러곤 동료들과 밖으로 나와, 팀장의 구호에 맞춰 손, 발목을 풀며 아침 체조를 한다. 그가 새 하루를 맞을 준비는 이렇게 끝난다.

오 씨는 노천극장 진입로부터 뒤편의 매미산으로 넘어가는 길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훌로 책임지기엔 넓은 공간이라서 일을 할 때 나름의 요령이 필요하다. 주변 동료 없이 혼자서 하는 일이라 외롭고 힘들 법도 하지만, 오히려 그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라며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노천극장의 밤이 축제 분위기로 무르익을 때였다. 당시 오 씨의 왼쪽 가슴에는 ‘정규직 전환합의 이행하라’는 구호가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다. 여태껏 국제캠 청소노동자는 우리학교에 고용된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고용돼 있었다. 학교와 노동자 사이에는 용역업체가 개입했다. 국제캠의 청소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새로 계약할 때가 찾아오면 혹시 잘릴까 마음 졸이는 일은 오 씨에게 반복됐다. 매년 동료를 떠나보내는 것도 오 씨에겐 익숙한 일이었다. ‘잘릴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 오 씨가 가슴에 배지를 다는 이유는 그런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

오 씨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것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단순한 욕심은 아니었다.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직고용으로 잘 돼봤자 소용없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애를 길러야 되잖아?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다시 만난 오 씨의 웃자립에는 자그마한 변화가 생겼다. 올해 9월부로 국제캠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배지를 달 필요가 없어졌다. 용역업체의 로고가 박혀 있었던 작업용 조끼도 벗어냈다. 모자 종류도 바뀌었다. “오늘은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와서 야구부에서 하나 빌려온 거야.” 파란색은 아니었지만, 측면의 ‘KHU’ 로고 때문인지 모자는 오 씨와 더욱 어울렸다.

“이제 진짜 경희대학교 소속이 된 거니까 긍지가 생기지. 젊은 사람한테는 정말 잘 된 일이야.” 오 씨의 왼쪽 가슴에 담아냈던 소망은 어느새 ‘희망’이 됐다.

쉐프의 솔씨로 일상을 맛있게 맛의 신세계 피코크 밀키트

#풍성한고명 #손쉬운요리 #비밀연구소특제소스

